

보도시점 : 2025. 11. 26.(수) 14:00 이후(11. 27.(목) 조간) / 배포 : 2025. 11. 26.(수)

<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(9.7) 후속조치> "판교 하나 더" 수도권 공공분양 2.9만호, 용도전환도 첫 윤곽… 공급 성과 본격화

-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2.3배… 공공주택 착공 확대 성과 가시화
- 우수입지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4.1천호 확보에 전격 착수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와 4개 공공기관*은 '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.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*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(SH), 경기주택도시공사(GH), 인천도시공사(iH)
 - 이번 공급 물량은 새정부 「주택공급 확대방안」(9·7대책)에서 발표한 수치(2.7만호) 대비 약 2천호 증가한 규모로, 판교(2.9만호)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.
 - 특히,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 (2.2만호)보다 32.2% 증가했고, 최근 5 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(1.2만호)의 약 2.3배 수준으로, 공공 부문의 착공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, 공급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

□ 내년에 분양될 단지들을 살펴보면, 지역별로는 △서울 1.3천호, △인천 3.6천호, △경기 23.8천호로 분포되어 있고, 주요 지구별로는 △3기 신도시 7.5천호, △2기 신도시 7.9천호, △기타 중소택지 13.2천호의 공공 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.

- 3기 신도시에서는 △고양창릉(3,881호), △남양주왕숙(1,868호), △인천계양(1,290호), 2기 신도시에서는 △광교(600호), △평택고덕(5,134호), △화성동탄2(473호),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△고덕강일(1,305호), △구리갈매역세권(287호), △검암역세권(1,190호)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.
- 특히, 내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, 수도권광역급행 철도(GTX),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,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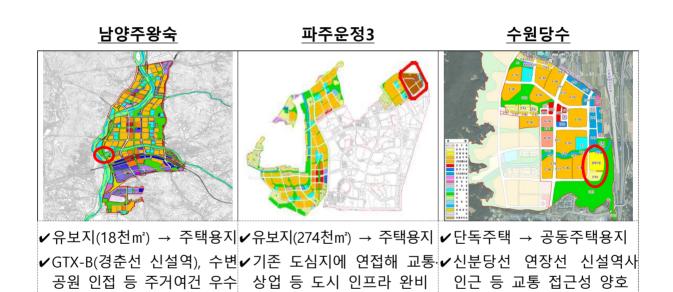
고양창릉 S-01 (494호, '26.3) 인천계양 A-9 (318호, '26.3) 수원광교 A-17 (600호, '26.10) (1,305호, '26.8)

✓ 서울 은평·마포 인접 ✓ 수도권 서남부 거점 ✓ 편리한 여건(아주대병원 등) ✓ 쾌적한 여건(한강공원 등)

✓ GTX-A 창릉역(예정) 등 교통여건 우수 인접 등 자족기능 우수 고속도로 접근성 우수 광역도로망 인접

- □ 아울러,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 달 남양주왕숙(881호), 군포대야미 (1,003호)를 포함해 총 5.1천호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.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4개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 발을 내딛는다.
 - 정부는 9·7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 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,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「공공택지 재구조화」 제도 도입*을 추진 중이며,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물량으로 1.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.
 - * 상가 등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지 선정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한 「공공주택특별법」 개정안 발의('25.11.14, 박용갑 의원안)

- □ 이날 LH는 **우선 추진물량의 28%**인 **4.1천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**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**관련 계획 변경안**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.
 - 조정대상 입지들은 △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(455호), △2기 신도시 파주 운정3(3,200호), △중소택지 수원당수(490호) 등 주요 지구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고, GTX-B,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입지들이라는 점도 특징이다.
 - 각 사업지별 공공주택은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, 특히 수원당수는 내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.



- □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"9·7대책을 통해 **착공 중심의 관리 체제로 전환**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, 앞으로도 **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**할 것"이라며,
 - "앞으로도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, 주요 공공기관 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(044-20 책임자 과 장 박우성 (044-20	1-4515)
	•
책임자 과 장 박우성 (044-20	1-4522)
< 수도권 공공택지 >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사무관 이인원 (044-20	1-4443)
	1-4523)
호크 시도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준 (044-20	1-3434)
< 2기 신도시 >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염지원 (044-20	1-3438)
팀 장 박병호 (055-92 하구토지즈태고시 책임자	2-5102)
CH 공공분양 > 한국토지주택공사 적임자 팀 장 김용민 (055-92)	2-5103)
담당자 차 장 박재홍 (055-92	2-5129)
< LH 비주택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팀 장 손귀득 (02-671	6-2840)
용도전환 >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담당자 차 장 박호식 (02-671	6-2842)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책임자 부 장 김진아 (02-341 < SH 공공분양 >	0-7375)
분양부 담당자 대 리 조혜원 (02-341	0-7494)
경기주택도시공사 책임자 부 장 이총재 (031-22 < GH 공공분양 >	0-3281)
주택관리처 담당자 과 장 윤극한 (031-22	0-3502)
인천도시공사 택임자 팀 장 박석규 (032-26	0-5241)
기획조정실 담당자 대 리 서동우 (032-26	0-5245)





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(안)



※ 상기 계획은 사업 추진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